

OVERWATCH 2

HEROES ASCENDANT

# 생각 없는 창조자들



ANDREW ROBINSON 단편 소설

이야기  
*ANDREW ROBINSON*

그림  
*THOMAS ISTEPANYAN*

편집  
*CHLOE FRABONI*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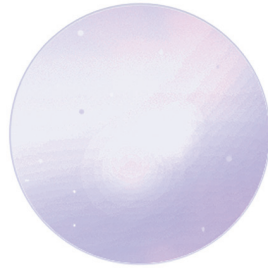
디자인  
*JESSICA RODRIGUEZ*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IAN LANDA-BEAVERS*

게임 팀 자문  
*JEFF CHAMBERLAIN, GAVIN JURGENS-FYHRIE,  
PETER C. LEE, MIRANDA MOYER, DION ROGERS*

도움 주신 분  
*IAN LANDA-BEAVERS, MADDY COOK*





**석** 양이 임시 거주지 폐허를 분홍빛과 핏빛으로 물들였다. 불타는 잔해와 차량이 뿜어내는 연기가 호주 오지에 희뿌연게 퍼져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커퀸은 파괴된 잔해를 조사하면서 씩 웃었다. 무장한 쓰레기 집단이 빠른 걸음으로 오가며 옴닉 무리의 잔해를 헤집고 있었다. 옴닉 놈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멍청해서였는지 쓰레기촌 100km 이내로 접근해왔던 것이다. 해먼드는 옴닉 사태 이후에 오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런 옴닉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걸 진작부터 알았다. 이것들은 세상이 알고 있는 옴닉과는 달리, 사막의 열기, 방사선 등에서 살아남기 위한 근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괴하게 달라져 있었다. 더 거대하고 아주 저돌적이며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쓰레기 집단에 대한 적대감만은 변치 않았다. 싸움이 일어나면 격하게 반응했는데, 파괴력 보강을 위해 장비나 무기에 집착했다. 팔이 다섯 개 달린 옴닉의 잔해를 본 정커퀸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야말로 군비 확장 경쟁이 따로 없었다.

그 망할 고철 덩어리는 정커퀸이 다가가자 갑자기 깨어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상처 입은 벌레처럼 “죽인다... 고기 덩어리...”라고 씩씩거리며 기어온 것이다. 정커퀸은 깜짝 놀랄 뻔했지만, 옴닉이 화염방사기 팔을 들어올리자 산탄총을 뽑아 놈의 큼직한 머리통을 날려버렸다. 확인 사살까지 하고 나니 놈은 움직임을 멈췄다.

해먼드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메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봇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또 한 번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몰린 가운데, 비명이 들린 구멍에서 거대한 옴닉이 튀어나왔다. 뒤틀린 팔다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장식처럼 돌아나 있었고, 발에는 속도 향상을 위해 작은 타이어들어 흑처럼 붙어있었다. 전투 메카 크기의 이 옴닉은 황무지에 있는 옴닉답게 낡고 부식된 상태긴 했지만, 옴닉 사태 시절의 견착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다. 해먼드는 이 모두를 알아차렸다.

해먼드가 조잘대자 레킹볼 메카가 “경고!”라고 알렸다.

메카에서 발사된 갈고리는 옴닉의 무릎에 맞고 철컹하는 소리를 냈다. 놈이 쓰러지자 정커퀸은 빠르게 돌진하여 도륙이라고 이름 붙인 도끼를 휘둘렀다. 옴닉은 퀸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고, 도끼가 로봇의 머리와 거대한 어깨를 분리시킬 때쯤 옴닉의 로켓은 하늘로 발사되어 아무 피해도 주지 못하고 폭발했다. 하늘에 폭죽이라도 터진 듯 정커퀸이 환호하는 가운데, 머리를 잃은 몸통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에 고꾸라졌다. 로봇의 머리는 지면에서 한 번 튕겨 올랐다가 단단한 땅에 처박혔다. “너희 모두... 곧... 죽을 것이다...” 옴닉의 불빛이 꺼졌다.

“구경 났어!” 정커퀸이 추종자들에게 욕박질렀다. “쇼는 끝났어.” 도와준 해먼드에게 감사하다는 듯 퀸이 고개를 끄덕였다.

땀장이들의 우두머리인 메리가 해먼드를 바라보았다. 해먼드와 메리는 정커퀸의 숙원 사업 책임자가 되었다. 쓰레기촌 깊은 곳에서 파낸 장치를 다시 쓸 만하게 만드는 사업 책임자가.

해먼드가 망가진 강철 구조물에 진입을 시도하며 근처에 있던 쓰레기 집단에 고철 조각 세례를 퍼붓는 가운데 구조물로 걸어가던 퀸은 “놈들이 쓸 만한 보물을 숨겨두는 곳일까, 챔피언?” 하고 질문을 던졌다.

해먼드는 정커퀸을 바라보았다. 메리와 해먼드가 거대한 반중력 엔진을 재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 하나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개인적으로 옴닉이 이런 곳에서 그런 보물을 발견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해먼드였지만, 퀸의 기분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그는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정커퀸이 근처에 있던 고철 수집가 무리를 향해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자, 청력이 민감한 햄스터는 살짝 움찔했다.

“살살이 뒤져! 보물 꼭 찾아내자고.” 퀸이 외쳤다.

해먼드는 전투가 끝난 뒤 땀장과 철거자, 고철 수집가 등 쓰레기촌의 다양한 진영이 모여 리듬에 맞춰 잔해를 치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엉망이 된 자동차, 구조물, 옴닉의 몸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해체하는 작업이었다. 철거자들은 도끼에서부터 굴착기, 쇠지렛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분해하면서 재료, 식물, 희귀 금속, 전자제품, 보물 등을 분류했다. 이렇게 모은 부품은 땀장이 무리와 흥정하거나 몸싸움을 벌여 값이 나가거나 유용한 물건으로 교환하곤 했다. “어서 일들 해.” 메리가 말했다. “추진기는 웃돈을 얹어주지.”

해먼드는 다시 구조물에 있던 강화 문에 집중했다. 조바심이 나 메카의 4연장 기관총을 갈기고 메카로 문을 몇 차례 들이받으니 메카의 해치가 조금 흔들거렸다. 투기장에서 로드호그와 치렀던 전투에서 얻은 영광의 상처였다. 잠금 장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완벽주의자였던 그로서는 짜증 나는 상처가 아닐 수 없었다. 수리가 필요했다.

“폭발물이 있으니 필요하면 말만 해, 챔피언.” 메리가 호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해먼드가 웅얼거렸다. “필요 없음.” 짜증이 난 해먼드 대신 메카가 알아서 대답했다. 한 번 더 문을 때리자 마침내 문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갔다.

안에는 큼직한 방, 다양한 뉴스를 보여주는 모니터 여러 대가 있었다. 해먼드는 조잡한 통신 센터라 추정했다. 모니터의 뉴스 영상은 행성 전체가 로봇 공격을 받는다는 내용인 듯했다. 메카의 해치를 열고 나온 해먼드는 놀란 눈을 깜빡이며 영상을 시청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 “강통 놈들도 꽤나 하잖아... 널 섹터가 계획이 있는 것 같군. 이 동네에서 싸우는 건 충분히 했잖아. 흠... 너와 메리가 탈것을 고치는 대로 세상 구경하러 가야겠어.”

영상을 보던 햄스터는 쓰레기 집단이 옴닉을 너무 증오한 나머지 그 로봇들을 과소평가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옴닉들이 이런 상황실을 만든 걸까? 인간 거주지에서 빼앗은 걸까?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무슨 목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 의문이 생겨난 해먼드는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중얼대면서 문으로 나갔다. “충격적인 소식.” 메카가 통역했다. “직접 볼 것.”

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햄스터를 바라보다가 도끼를 꺼내 들고 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건 또 뭘 찾아낸 거야?” 방에 들어선 정커퀸은 여러 화면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로스엔젤레스, 런던, 요하네스버그... 전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퀸이 모니터를 하나씩 확인했다.

해먼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널 섹터? 망할 옴닉은 항상 공공이가 있다니까.” 정커퀸이 레킹볼을 향해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짹짹.” 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강통 놈들도 꽤나 하잖아... 널 섹터가 계획이 있는 것 같군. 이 동네에서 싸우는 건 충분히 했잖아. 흠... 너와 메리가 탈것을 고치는 대로 세상 구경하러 가야겠어.”

해먼드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뉴스 화면에 다시 집중했다. “최근 널 섹터의 공격에 함락된 도시는 중국의 리장입니다. 이곳은 왕카이 산업개발, 루청 인터스텔라, 뉴 하베스트 बैंकिং 컨소시엄 등 수많은 기업이 소재한 중국 최고의 기술 도시입니다.” 군 부대가 집중 포화를 받는 저해상도 영상이 켜지자 앵커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리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루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면 널 섹터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마천루에 있던 간판 하나가 햄스터의 눈에 들어왔다. 옆으로 누운 푸른 화살표가 있고 주위를 달궈도가 감싼 그림. 틀림없이 루청 인터스텔라의 로고였다. 해먼드가 살았던 호라이즌 달 기지의 소유 기업.

해먼드를 창조한 회사.

생각 없는 창조자들.

아드레날린과 분노에 휩싸인 해먼드의 몸이 굳었고, 그는 순식간에 12년을 거슬러 올라가 단편적인 장면만이 띄엄띄엄 기억나는 과거로 회귀했다.

부드러워. 따뜻해... 엄마.

*바스락. 딸깍 딸깍 딸깍.* 플라스틱에 발톱이 부딪히는 소리. 구불구불한 관이 위아래로 뻗어 있다. 햄스터 형제자매가 꿈틀대며 뭉쳐 있다. 열두 마리. 나중에는 더 많아졌다. 햄스터는 행복했다. 단순한 행복이었다.

과학자들은 햄스터를 미로에 놓았고, 햄스터는 미로의 끝에 놓인 간식을 찾기 위해 후각에 의지했다. 퍼즐을 푸는 건 재미있었다. 특히 보상이 일품이었다.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짝조름한 해바라기 씨. *와작와작* 했다. 햄스터는 형제자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알지 못했지만, 다른 햄스터보다 먹을 것을 더 자주, 빨리 찾아냈고, 가족 중에서 몸집이 제일 커졌다. 가끔 먹을 것을 아주 빨리 찾을 때면, 과학자들은 소리를 내며 이를 드러내고 서로 종이를 건네기도 했다. (수년 전, 고성이가 오가는 폐기장 전투 속에서 해먼드는 과거 과학자들의 그런 행위가 ‘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심풀이로 해먼드와 가족들에게 돈을 걸었던 것이다.)

햄스터는 혼자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오래 일했고 다른 과학자들이 ‘차오 박사’라고 부르던 과학자 하나가 반짝이는 날카로운 막대기로 햄스터를 찔렀다. 엄청나게 아팠다.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자매처럼 죽지도 않았다. 그건 수개월 동안이나 이어졌고, 찔릴 때마다 아팠다. 햄스터는 왜 죽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루는 햄스터가 깨어나니 뭔가 달라져 있었다. 어떤 기호가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타났다.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오 박사가 다가왔다.

*8번 실험체,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때?*

*해먼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차오 박사님. 이름을 붙이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요... 그런데 왜 하필 햄스터인가요?*

*고릴라보다 싸고, 아무리 많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 너무 정 주지 마.*

햄스터는 더 많은 실험을 거쳤다. 더 더 많은 실험을 거쳤다. 몸과 정신 모두 성장해갔고, 자신이 왜 ‘피실험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이건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었다). 뇌 활동은 급격히 활발해졌다. 햄스터는 사물을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물밑듯이 몰려와 인지하게 되었다. 햄스터는... 똑똑하고 특별하며 강력해졌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지만, 햄스터는 새로운 자신이 마음에 들었다.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햄스터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해 더 큰 우리에 넣었다. 햄스터가 철창을 발톱으로 긁을 때면 과학자들은 햄스터가 다른 개체를 죽일까봐 걱정하는 듯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햄스터의 몸집은 원래 컸지만 이제는 다른 개체보다 몇 배나 커진 상태였다. 홀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본 적이 없던 그는 어머니의 눈길을 갈구하며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햄스터와 가족 사이에는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햄스터는 따로 떨어진 우리에서 가족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족들은 해먼드 쪽은 보지도 않았다. 햄스터는 아주 외로웠다.

햄스터는 지치고 혼란스러웠다. 왜 너무도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는지, 왜 가족들은 그와 모습이 *다른지*. 햄스터는 과학자들에게 묻고 싶었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다. 과학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익살스럽다는 듯 웃으며 더 해보라고 말했다. 간식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형제자매가 ‘공동 거주지’를 떠났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공동 거주지라는 단어도 과학자들에게서 배웠다. 형제자매들도 해먼드와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해먼드는 내심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우리로 오지 않을까 매번 기대하곤 했다.

# 어머니의 눈길을 갈구하며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햄스터와 가족 사이에는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슬픔에 잠겼다. 형제자매들은 죽었다. 해먼드는 네브스키 박사가 응우옌 박사와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다. 과학자들은 해먼드를 제외하면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슬픔이나 후회가 보이지 않았다. 해먼드는 인간의 표정을 읽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안위가 그 표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학자들이 왜 슬퍼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철컹.

“어이! 챔피언! 무슨 짓이야?” 깜짝 놀라 공상에서 빠져나온 해먼드는 주위를 둘러보다 칼로 자신을 가리키는 권을 발견했다. 갈고리가 모니터를 뚫어 버린 것이다. 그걸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해먼드는 망가진 모니터에서 갈고리를 회수했다.

메리가 방에 들어와 못쓰게 된 모니터를 발견했다. “나중에 올까?”

정커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일이야?”

메리가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 쓰레기장을 이 잡듯이 뒤졌어. 애초에 가능성도 희박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마저 다 떨어졌네.”

윈은 짜증스럽게 입을 비죽였다. “부품 없이 장난감을 어떻게 고쳐, 메리?”

메리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났다. “계속 찾아보지.”

해먼드는 메리를 흘끔 쳐다봤다. 걱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해먼드는 다시 파괴된 모니터에 비치던 리장 타워에 눈을 돌렸다. 뭔가 떠올랐다.

해먼드가 짹짹거렸다.

“포유류가 할 일이 있다고 함.” 메카가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윈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며 메카를 따라 나갔다. “이봐.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재량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무단이탈은 아니지. 무슨 수작이야?”

해먼드는 한바탕 으르렁거림을 쏟아냈다. “햄스터가 부품을 어디에서 구할지 알고 있다고 함.” 메카가 말을 전했다.

정커윈은 놀랐다. “오, 그래. 그럼 가자고!”

# 마천루를 올려다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두렵기도 했다. 그러니 화가 났다. 화는 좋다. 유용하니까.

해먼드는 고개를 젖고는 작은 소리로 명령어를 뱉어냈고, 레킹볼의 굴리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석양이 지는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햄스터가 혼자 가야 한다고 함.” 굴러가는 메카가 말했다.

“좋아, 그럼 죽지만 말고.” 퀴이 레킹볼 꿈무늬에 외쳤다. “정신 나간 쥐새끼 같으니.” 퀴이는 수석 기술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너밖에 없네, 메리. 얼른 하자고.”

창백한 달빛이 중국의 도시 리장 위에 내려앉았다. 해먼드는 거리에 있는 널 섹터 부대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레킹볼을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도시에 피해가 좀 있었지만, 옴닉 부대 수송선과 군수품 규모를 보고 나니 솔직히 생각보다 심한 피해는 아니었다. 도시가 거의 비워지다시피 한 데다, 옴닉 순찰조는 시간에 맞춰 돌아다니고 소리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해먼드가 돌아다니기는 어렵지 않았다.

야시장은 리장 타워 아래 있었다. 한때는 지금처럼 야심찬 시각에도 붐비던 곳인 것 같았지만, 침공 이후에는 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몇몇 사람들만 물건을 팔고 있었다. 인간들의 반격이 도시 외곽에서 널 섹터의 주의라도 끌었는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레킹볼은 빠르게 굴러 이동했고, 해먼드는 메카의 다리를 꺼내 세웠다. 홀로그램 간판과 불빛이 비에 젖은 거리에 반사된 모습은 기묘한 방식으로 해먼드를 매료시켰다. 기대했던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해먼드는 아주 와글와글한 광경이었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몸을 일으켜 타워까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던 해먼드는 근처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놀랐다.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쓰레기 집단에는 갖가지 직업 출신들이 많았지만 ‘숨씨 좋은 요리사’는 없었던 것이다. 꽃돼지 엄마 휘귀라고 쓰인 가판대를 살펴보던 해먼드는 냄새의 근원을 찾아냈다. 양념한 고기와 짭짤한 야채 맛이 거의 입안에 느껴질 정도였...

*아니야. 나중에.* 해먼드는 툭툭한 불을 스욱 문질러 침을 닦았다. 추진기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개인적인 의문에 대한 답도 원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복수까지도. 해먼드는 중얼거리며 마천루를 올려다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두렵기도 했다. 그러니 화가 났다. 화는 좋다. 유용하니까.



해먼드는 냉혹한 웃음을 지었다.

타워 입구 앞에는 큼직하게 탁 트인 뜰이 있었다. 은신은 틀린 상황이었다. 중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5명 단위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많을수록 안전하니, 현명한 선택이었다. 건물 방어용 중형 벙커까지 마련된 것을 본 해먼드는 콧방귀를 끼었다. 도시에서 널 섹터를 몰아내기보다는 본인들을 지키는 데 혈안인 모습을 보니 루청에 대한 평소 생각이 맞았던 것이다. 해먼드는 ‘물고기는 머리부터 썩는다’는 인간의 격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딱 맞군.** 그는 생각했다. **루청은 냄새 나는 생선이야.**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생각이 하나 있었다.

다시 레킹볼에 탑승한 해먼드는 갈고리를 최대 거리까지 발사하여 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의 귀퉁이에 고정시켰다. 지상에서 몇 미터 떨어진 높이에서 그네 타듯이 진자 운동을 시작한 해먼드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메카의 파일드라이버 기능을 활성화했다. 포탄처럼 발사된 레킹볼은 운석처럼 빠르게 날아가 타워 로비를 뚫고 들어가 경비들을 쓰러트렸다.

해먼드가 중얼거렸다. “아, 이런.” 메카가 웅웅거렸다. “이건 널 섹터 공격임. 아주 나쁜 널 섹터임. 전원 후퇴할 것.” 해먼드는 경비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메카를 운전해 굴러나갔다. 이번 공격으로 건물 경비 전원이 몰려들 테니 시간이 없었다. 거대한 건물 지도를 지나가면서 루청 인터스텔라가 꼭대기 10개 층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해먼드는 거기에서 부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만** 한다. 건물 옆으로 이동한 레킹볼은 갈고리를 이용해 유리 벽면을 타고 10층, 20층, 30층을 올랐다.

잠시 이동을 멈춘 해먼드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갈아 넣어 만들었을 게 분명한 고요한 정원을 감상했다. 그 모습을 상상한 햄스터는 빙그레 웃은 뒤 다시 건물을 올랐다. 40층에서 갈고리를 타고 50층. 57층에 이르러 메카의 4연장 기관총을 꺼내 평면 유리창에 갈겼다. 이걸 기지에서 과학자들이 보여준 오래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배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그네를 탄 레킹볼은 관성을 이용해 안전유리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먼드에게도, 직원들에게도 다행이었다. 엘리베이터 구역으로 메카를 이동시킨 해먼드는 엘리베이터 문을 힘으로 연 후, 수직 통로를 통해 루청이 있는 63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햄스터는 육중한 보안문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정커윈과 함께였다면 과학자들이 왜 이런 문을 두는지 물어 봤을 게 틀림없었다. 햄스터는 이곳이 단순한 사무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곳에는 비밀이 많았다. 추악한 비밀이.

햄스터는 한숨을 내쉬었다. 보안문을 지나 관제 센터로 가는 건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부족했다. 루청 경비가 레킹볼이 건물 안에 낸 구멍을 발견이라도 하는 날에는 경비 이상을 상대하게 될 일이었다.

해먼드는 메카를 몰고 건물 외부의 통풍관 뚜껑으로 굴러갔다. 메카에서 나와 필요한 도구를 확인한 그는 뚜껑을 열고 기어올라갔다. 햄스터는 뚜껑을 닫기 전, 메카에게 뭔가를 중얼거렸다.

“자동 대상 지정 모드 활성화.” 레킹볼이 읊었다.

햄스터는 통풍관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다가 분기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추기를 반복했다. 과거에 간식이나 도구를 찾던 민감한 후각을 이용해 길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특정한 전자장치의

주파수, 서버탑의 열기, 8시간 동안 근무한 보안 요원의 말라버린 땀 냄새를 쫓았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햄스터는 오래전 승리의 기억에 미소를 지었다.

첫 탈출의 기억에.

수년 전 달 기지.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햄스터는 하루 종일 볼주머니에 숨겨두었던 머리핀을 빼냈다. 장 박사가 잠가둔 야간 수용 우리를 여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우리 위로 올라간 햄스터는 천장으로 뛰어올라 통풍구 창살을 발톱으로 단단히 잡았다. 따로 숨겨둔 드라이버를 꺼낸 햄스터는 손쉽게 통풍구로 진입했다.

그 이후 아무도 햄스터를 가둬놓을 수 없었다. 통풍관을 볼 때면 햄스터 거주용 미로나 과학자들이 지능을 시험하는 데 쓰던 미로가 아련하게 떠오르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햄스터는 후각을 이용해 식당으로 가 옥수수 과자, 압,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잔뜩 먹어치우곤 했다. 세상에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는지 해먼드는 전혀 몰랐다. 다음으로는 창고를 발견했다. 가지고 놀 도구가 가득한 창고에서 고장 난 기계를 고치고, 남은 부품으로 새 기계를 만드는 건 큰 재미였다. 파텔 박사의 방에 ‘선물’을 남기는 것도 그랬지만, 인간을 골리면 자아가 충족되는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제작, 개량, 수리 활동은 도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곧 햄스터는 거의 모든 걸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언젠가 쓰레기 집단에서도 같은 기질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망가지고 부서진 것들을 가져다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니까. 재생산과 재활용. 거기다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순간을 위해 산다. 해먼드는 그 점도 높게 평가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해먼드는 통풍관 구조를 외우게 되었는데, 차오 박사가 다른 생물에게도...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차오 박사가 자신에게 한 짓을 뭐라고 해야 할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변화’는 적합하지 않았다. 향상? 진화? 통풍구 쇠창살 사이로 그러한 생물들을 살펴봤는데, 어떨 때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쪽 통풍관 길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밤, 탈출을 위해 추진하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도구를 가져오던 해먼드는 통풍구 아래 방에서 들려오는 킁킁, 킁킁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코를 벌름거리려 맡은 냄새는 햄스터나 그것들과 달랐다.

해먼드는 창살 너머로 어두컴컴한 공간을 들여다보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털복숭이 형상이 간신히 보였다. 또 킁킁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만하면 희망을 품지 않으려는 해먼드였지만, 혹여 다른 햄스터가 과학자의 실험에서 살아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제자매 중 하나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흥분과 호기심이 조심성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해먼드는 빠르게 통풍구 덮개 나사를 풀고 방으로 뛰어내렸다. 손에는 과학자들이 입힌 일체형 유니폼에서 꺼낸 손전등을 들고서(도구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만 없었다면 걸레가 될 때까지 잘근잘근 씹어뱉을 것이다). 손전등을 켜 해먼드는 털복숭이 형체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고... 상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해먼드는 뒤로 휙 물러났고, 상대는 킁킁거리며 천장으로 뛰어올랐다.

둘이 진정하는 데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고릴라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며 열린 창살에 매달려 있었다. 해먼드는 자신과 유사한 유니폼을 고릴라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옷에는 28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간 햄스터의 가슴에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동정심? 수상하다는 듯이 마주보고

# 어느 밤에는 고릴라가 녹색이 섞인 파란색 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혹한 진공 상태 우주에 로켓이 있었다. 창문에는 조잡하게 그린 해먼드를 어깨에 태운 28이 보였다.

있는 이 고릴라는 분명 해먼드도 겪은 실험에서 살아남은 게 확실했다. 햄스터는 해치지 않는다는 듯이 앞발을 보여주다가 문득 주머니에 있는 땅콩버터 과자를 떠올렸다. 해먼드가 포장지를 뜯고 건네자 28은 호기심을 보이며 냄새를 맡다가 천장에서 내려왔다. 해먼드가 과자를 던져주자 고릴라는 한입 베어물은 뒤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과자를 먹어치운 고릴라는 해먼드를 뜯어보며, 해먼드가 대체 어떤 존재인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고릴라는 웃으며 침대에서 뛰어댔다.

침대 틀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은 해먼드는 드라이버로 느슨해진 나사를 죄어주었고, 28은 눈을 크게 뜨며 도구를 가리켰다.

둘 다 말은 할 줄 몰랐지만 28이 몸짓으로 의사를 전할 줄 알았고, 해먼드도 최선을 다해 답했다. 햄스터가 떠나려 하자 고릴라는 또 올 거냐고 물었고, 햄스터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28은 방문객이 던져준 드라이버가 귀중품이라도 되는 듯 꼭 안았다.

그렇게 해먼드는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28은 해먼드처럼 다른 모든 실험체보다 훨씬 똑똑했고,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와 따로 떨어져 홀로 있어야 했다. 28은 어딘가 순수한 점이 있어 보고 싶다면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다. *보호본능이라고 해야 하나?* 해먼드는 생각했다. 자신도 한때 그런 순수함이 있었다. 세상을 시험해보겠다는 그런 순수함이다. 그런 점 때문에 다른 무리는 28을 무시하거나 해코지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위대한' 실험 과정에서 사회적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 28을 때때로 격리했던 것이다.

해먼드는 주기적으로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28은 땅콩버터를 가장 좋아했다. 햄스터는 고릴라 친구에게 수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고, 28은 보답으로... 더 나은 것을 꿈꾸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어느 밤에는 고릴라가 녹색이 섞인 파란색 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혹한 진공 상태 우주에 로켓이 있었다. 창문에는 조잡하게 그린 해먼드를 어깨에 태운 28이 보였다.

다시 현재, 루칭 건물의 중앙 제어실에서 두 요원이 어지럽게 배열된 카메라 영상을 조작하고 있었다. 첫 번째 요원이 머리를 기울여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금 들었어?”

두 번째 요원은 해먼드가 건물에 낸 큰 구멍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에 집중하면서 투명스럽게 답했다. “뭘 들어?”

“천장 통풍관에서 뭐가 굽히는 소리.”

두 번째 요원은 콧방귀를 끼었다. “쥐새끼겠지.”

첫 번째 요원은 상대를 찌러봤다. “쥐새끼? 63층에?”

두 번째 요원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비웃었다. “그럼 뭐겠어?”

그때 천장 덮개가 열리며 해먼드가 방으로 낙하했고, 두 요원은 선 채로 놀라 얼어붙었다. 빠르게 정신을 차린 첫 번째 요원이 허리띠에서 휴대 무기를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렇게 큰 쥐는 난생 처음이야!”

해먼드의 테이저에 맞은 요원들은 무기를 뽑지도 못한 채 바닥에 철퍼덕 고꾸라졌다. 햄스터는 씩 웃었다.

의자를 빼온 해먼드는 요원들이 조작하던 콘솔 앞에 앉아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다.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리고 통신 시스템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게 먼저다. “위험 상황입니다. 건물에서 대피하십시오.” 차분한 음성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고 비상 조명이 꺼졌다. 해먼드는 요원들이 과학자와 관리자들을 출구로 안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옛날에 들었던 양에 대한 농담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웃기는 농담은 아니었다. 해먼드는 슬랩스틱을 더 좋아했다. 엉덩방아를 찧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거.

곧 육중한 보안문을 개방한 해먼드는 원격 조종기로 레킹볼을 소환했다. 그러나 잠시 후 요원 두 명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꿈짜 마! 소, 손들...” 키가 1미터밖에 되지 않는 중무장한 쥐가 자신을 바라보자 첫 번째 경비가 말을 더듬었다. “어?”

우르릉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경비가 타이밍에 딱 맞춰 들어온 레킹볼에 나가 떨어지자 해먼드는 히죽 웃었다. 기절한 경비를 갈고리로 방 밖으로 끌어낸 햄스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강화 문을 닫고 관제 센터를 봉쇄했다. 이제 장난은 그만. 작업을 시작할 때였다.

해먼드는 콘솔을 조작하며 여러 보안 영상을 훑어 넘겼다. 필요한 부품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할까? 불현듯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고, 깨달음과 동시에 해먼드는 전율했다. 정보를 알려줄 사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불안감을 떨쳐낸 해먼드는 초조하게 여러 보안 영상을 넘겨보면서 연구실이나 저장 시설을 찾아보았다. 좌절감에 작게 으르릉대던 그는 새로운 영상들이 나타나자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다. 건물 내부나 외부의 영상이 아니었다.

다시 볼 줄은 생각도 못한 장소의 보안 영상. 해먼드가 한때 집이라 부르던 곳의 모습이였다.

호라이즌 달 기지.

그는 다시 CCTV 영상을 넘기기 시작했다. 기계 기술을 익히던 중앙 격납고의 12번 베이에는 부품을 얻으려 분해된 것으로 보이는 로버와 점프 팩이 즐비했다. 잘 자란 작물이 가득한 온실. 아무도 없는 식당. 해먼드 자신과 유전자 변형 동물들이 훈련되고 실험을 받던 교실. 의료 구역. 수경 재배 연구실. 하수 처리 시설.

# “회사에서는 유인원 반란 때 네가 죽은 줄 알았단다. 하지만 나는 의구심이 들었지. 너는 아주... 유능했으니까.”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햄스터는 한 여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8번 실험 체인가?”

해먼드가 의자를 돌리자 메카가 경고했다. “침입자 접근 중.”

화난 해먼드는 메카를 향해 짹짹거렸다.

“새로운 조종사 비속어 감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 완료.” 메카가 대답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중 의자에 앉은 고령의 중국인 여인이 나타나자 해먼드는 수염을 부르르 떨며 으르렁댔다. 여인은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야, 8번 실험체.” 이 과학자가 자신을 이름 대신 식별 번호로 불렀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었다.

인간에게는 귀엽고 웃기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햄스터는 으르렁거렸다. 해먼드는 전혀 웃긴 기분이 아니었다.

“햄스터를 해먼드라고 불러라.” 메카가 원색적인 표현은 제외한 채 요점만 전했다.

여인은 묵인하는 의미인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8번 실험체’는 인간미가 없긴 하지. 나를 기억하니?”

해먼드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멍청하지 않다, 차오 박사.” 메카가 말을 전했다.

여인은 인상적이었는지 또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구나.”

해먼드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너는 일찍 기지를 떠났지.” 메카가 말했다.

“반란... 이 일어나기 전을 말하는 거라면, 그래.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거기서는 지낼 만큼 지냈단다. 달 중력을 수년간 접하다 보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몸이 위축되었지. 수년간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내 나이에 손실된 근육량을 회복하는 게 너무도 힘들단다. 인공 신체도 잘 맞질 않아서...” 여인은 의자를 가리켰다.

해먼드가 비웃었고, 메카가 말을 전했다. “널 섹터가 침공했을 때 타워에서 대피했어야 한다. 멍청함.”

“여기에 빠앗기면 안 되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는 CEO로서 정보를 지킬 책임이 있단다.” 여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나이쯤 되면 위험은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다면...” 여인은 거의 죽여 보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해먼드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가 콩 소리를 냈었다. 그리고 새되지만 진중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선택의 기회를 준다. 햄스터에게 정보를 주거나, 험한 꼴 보거나.” 메카가 말했다. “반중력 추진기용 황어니그웨 추진기는 어디에 있나?”

여인은 대답 대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다. “좀 놀라긴 했지만 만나서 반갑구나, 8번 실험체야. 여태까지 어디에 있었지?”

해먼드는 흥하고 반응했다. 메카가 답해주었다. “알 것 없다.”

“회사에서는 유인원 반란 때 네가 죽은 줄 알았단다. 하지만 나는 의구심이 들었지. 너는 아주... 유능했으니까.”

해먼드가 메카의 4연장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차오 박사는 단말기로 다가가 카메라 영상이 바뀌도록 명령어를 입력했다. 로봇 손이 운영하는 정수 처리장이 아직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달 기지에 쓸 구조 시설 재료를 제작하는 제작 시설 영상으로 바꾸었다. 다음으로 방 하나가 나타났다. 놀란 해먼드는 여인을 돌아보며 해명을 요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가 있던 방이란다. 매번 아주 손쉽게 탈출하던 우리도 있구나.” 여인은 비꼬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잠금 장치를 바꾸고 강화해도 소용이 없었지.”

해먼드는 다시 으르렁댔고, 메카가 말을 전했다. “햄스터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듯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음.”

“그래, 넌 항상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했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장 박사와 플로레스 박사가 네 행선지를 두고 내기를 했었던단다.” 여인은 다른 모니터로 몸을 돌리고는 달 기지의 오래된 보안 영상을 재생했다. 어린 해먼드가 중력 렌치와 레이저 절단기를 이용해 무슨 기계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넌 알아서 공학과 기계공학을 배웠어. 네가 만든 이 끔찍한 메카 좀 보렴. 정말 쓸모가 많을 거야.”

레킹볼이 한 걸음 해먼드에게 다가갔고, 여느 때처럼 해치가 덜그럭거렸다. 해먼드는 반드시 수리하겠다는 듯 이를 꽉 물었다.

해먼드가 대답을 중얼거렸다.

“누구나 작은 존재를 무시한다.” 메카가 말했다.

여인은 대답 대신 훈련 시설 영상을 재생했다. 다층 구조의 거대한 체육관에서 원숭이 두 마리가 링 위에서 스파링하는 모습이었다. 해먼드는 재미로 자신을 괴롭혔던 덩치 큰 오랑우탄을 알아봤다. 다이슨은 이제 늙고 살이 붙었지만, 스스로 방어구와 무기를 만들어낸 것 같았다.

여인과 해먼드가 화면을 바라보는 가운데 두 원숭이는 강타를 주고 받았다. 오스카가 상대를 몰아붙이자 상대는 항복을 선언했지만, 오스카는 조롱하며 상대의 숨통을 끊었다.

해먼드는 차오에게 찡찡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메카가 물었다.

“무슨 말이지?” 차오 박사가 반문했다.

해먼드는 오만상을 찌푸린 채 화면에 집중하며 장황하게 찡찡거렸다.

메카가 잠깐의 처리 후 말을 전했다. “루청은 왜 유인원에게서 달 기지를 탈환하지 않았나? 수조 달러 상당의 자원을 잃었을 것. 인간답지 않은 행동.”

차오는 기분이 상한 듯했다. “아, 시도했단다. 지난 10년간 세 팀을 보내 기지를 되찾으려고 해봤지. 매번

더 숙련된 팀에 장비를 보강해 보냈는데, 원숭이들이 끔찍하도록 간교하단 사실을 간과했다. 놈들은 공격을 예측했고, 우리가 방식을 개선하면 따라서 개선했지.” 차오가 설명했다.

해먼드는 과학자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차오는 새로운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기지의 외부 영상이었는데, 거대한 망원경이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우주를 감시하고 있었다. 루칭에서는 이 기지를 이용해 뿌연 지구 대기 너머로 천문 관측을 수행했고, 해먼드도 알았다. 루칭은 사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다며 만족해 했었다.

해먼드는 직접 망원경까지 가 들여다봤던 일을 떠올렸다. 별로 즐거운 경험은 아니었다. 종족 단위의 본능일 것이다. 쥐과는 먹이사슬 아래에 위치해서, 머리 위에 탁 트인 공간이 펼쳐지면 본능적으로 불안해하니까. 보통 죽을 때는 머리 위에서 뭔가가 덮쳐오기 때문이다.

해먼드는 대부분의 쥐과는 먹이사슬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 빼고. 자신은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자신은 사냥꾼이자 파괴자라고.

해먼드는 한때 지구에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소행성을 추적하던 망원경은 물론 다양한 시스템을 모두 원숭이들이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루칭 소속 과학자들이 원격으로 조종하는지, 아니면 지구 종말급 사건이 일어나건 말건 지난 10년간 방치해온 건지.

해먼드가 입을 열었다.

“루칭에서 아직 망원경을 조종하고 있나?” 메카가 차오에게 질문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미지의 위협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이 더 걱정이다.”

“원숭이들.” 해먼드는 답을 추측해보았다.

“역설적이지 않니... 너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실험체들을 구출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도 쏟았는데. 아,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 아무튼 그런데도 너는 네가 만든 기계 안에 숨기로 선택했구나. 너만의 생존 전략이었겠지.”

해먼드는 차오에게 달려들려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과학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던진 말은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제어판에 손을 뺐은 햄스터는 리장 타워의 보안 영상으로 전환한 후 엔진 부품을 찾아보았고, 결국 로켓 공학 연구 센터의 기술 실험실에서 원하던 물건을 발견했다. 해먼드는 영상에 보이는 실험실 번호를 적은 후 찾던 부품이 그려진 그림을 꺼내 들었다. 기억 속 모습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가 오래전에 설계했던 디자인과 흡사했다.

폭력과 비명이 난무했고, 햄스터는 최선을 다해 폭력 상황을 피했다. 과학자들의 만행 때문에 동정심은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최후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영장류 중 일부가 화난 얼굴로 햄스터를 바라봤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은 쥐보다는 자신들을 억압하던 자들을 파멸시키는 데 더 몰두해 있었다. 몸집이 작다는 건 때로 도움이 되었다.

# 해먼드는 그제야 이해가 갔다. 루청이 왜 그들을 만들었겠나? 결국엔 다들 짐승일 뿐인데. 짐승은 살아남으려면 뭐든지 한다.

머지않아 원숭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던 해먼드는 스스로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통풍관을 통해 빠르게 우주선 선착장으로 향했다.

해먼드는 종종걸음으로 여러 베이를 살펴보다가 우주 비행사, 과학자, 인부 수송용 셔틀을 원숭이들이 못쓰게 만든 모습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사실상 기지에 갇힌 것이었다.

14번 베이에서 소리가 나자 해먼드는 몰래 소리가 난 곳으로 이동하다가 걸음을 멈췄다. 숫자를 본 것이다. 28번 윈스턴. 출발 직전의 탈출선을 열심히 고치고 있었다. 둘이 함께 꿈꾸던 그림 그대로 로켓을 타고 기지를 떠날 수 있을 듯 보였다. 윈스턴은 익숙해 보이는 로켓 추진기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마친 후 덮개를 닫고 조종석으로 갔다. 해먼드는 혼란스러웠다... 상처를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윈스턴은 해먼드를 데려올 계획이 없었던 듯 보였기 때문이다. 씁쓸한 진실이 닥쳐왔다. 둘은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해먼드는 그제야 이해가 갔다. 루청이 왜 그들을 만들었겠나? 결국엔 다들 짐승일 뿐인데. 짐승은 살아남으려면 뭐든지 한다.

---

제어실에 있던 해먼드는 차오 박사가 자신을 향해 테이저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 깨달았다. 햄스터는 가까스로 전극을 피한 후 명령어를 내뱉었고, 메카가 갈고리를 발사해 차오가 쥔 무기를 날려 버렸다.

차오 박사가 해먼드의 회상을 깬다. “8번 실험체, 네가 윈스턴의 탈출선에 밀항한 사실을 윈스턴이 알고 있었는지 말해주겠니?”

해먼드는 허공을 째려보았다.

과학자는 햄스터를 평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넌 윈스턴에게 네가 잘 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지.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가지고 않았고. 고릴라와 함께 오버워치에 합류할 생각도 없던 거야.”

해먼드는 차오 박사를 노려보며 강하게 짹짹대며 사방에 침을 튀겼다.

메카가 웅얼거렸다. “놈이 흠쳐갔다... 통역 불가. 쥐의 부적절한 표현 감지.”

과학자는 행복하는 체 두 손을 올렸다. “그렇구나. 민감한 이야기야. 그래도 가서 만나보는 게 어때? 둘 다 탈출 동기 아니니.”



해먼드는 으르렁대려다가 조용해졌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메카가 말을 전했다. “햄스터는 새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네가 만든 그 작은 공 안에 숨어있었던 거니? 겁에 질린 생쥐 꼴이로구나.”

해먼드는 단호히 찌찌거렸다. “두려워할 만한 게 있었다. 하지만 햄스터는 이제 두렵지 않다.”

햄스터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거대한 유리벽 위로 지구가 보였다. 취향에 맞는다면 아주 웅장한 모습이었다. 윈스턴이 좋아하는 광경이었고, 실제로 해먼드를 데려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해먼드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아 싫었다. 아니, 공간 때문이 아니라 추억 때문일지도.

그런데 영상은 해먼드가 기억하는 모습과 사뭇 달랐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왜지? 지난 10년 이상을 고민한 그였지만 확실한 답은 찾지 못했다. 해먼드는 꼭 알고 싶었다. 이 건물에 온 이유 중 하나를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햄스터가 입을 열었다.

“왜?” 메카가 질문을 던졌다.

차오 박사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해먼드를 바라봤다.

“햄스터는 왜 자신을, 그리고 다른 모든 실험체를 실험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과학자는 햄스터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솔직히 자만심에서였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본 거지. 그 후에는 인센티브와... 투자금 때문이었고.”

해먼드는 놀라지 않았다. 자신이 만났던 인간은 거의 모두 오만하며, 지나치게 자만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커퀸만 빼고. 퀸도 오만한 건 사실이었지만, 전투에서 레킹볼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었으니 그럴 자격이 있었다.

“왜 햄스터, 오랑우탄, 고릴라를 택했지?” 어떤 불상사를 초래할지 모른다. 실제로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했고.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창조자 흉내를 냈다.”

차오 박사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유전자 조작으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우리가 무슨 실험을 했는지 들으면 놀랄걸? 넌 극히 일부만 본 거란다. 끔찍하게 실패했다는 건... 인정해. 그래서 달에서 실험한 거야. 지구상에서 실험체가 탈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니? 그래도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도 존재하지. 널 보렴!”

해먼드는 콧방귀를 끼고 중얼거렸다. “네 창조물은 우리를 빠져 나가 네 부하들을 죽였다.” 메카가 읊조렸다.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나?”

차오 박사의 대답은 해먼드를 놀라게 했다. “연구를 통해 어떤 걸 알게 되었는지 모르는구나. 저중력이 동물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달 거주 타당성을 알 수 있었다. 지구와 달 궤도에만 집중했던 우리는... 프로젝트 규모를 변경했지. 유인원과 너. 수명만 충분하다면 장기 우주 여행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을 거야.”

“원대한 계획이군.” 레킹볼이 말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생각이 달랐다.”

과학자는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준 선물을 고마워해야 마땅한데.”

해먼드는 그 말에 아연실색해 분노에 차 찌찌거렸다.

메카가 연산한 후 말했다. “실험 대상이 된 동물 중 무엇도 그래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능력이 조금... 향상되었다고는 해도 그 대가는 컸다. 너희 책임이다, 생각 없는 창조자.”

지구를 비추던 영상으로 몸을 돌린 해먼드는 순간 과거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깨달았다. 수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구조물이 유리벽 바깥에 있었던 것이다. 일부만 완성된 상태였지만 과학자가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상하군. 해먼드는 생각했다.

멀리에서 레이저 톱으로 금속 판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자 생각에 잠겼던 햄스터는 정신을 차렸다. 달렸던 문을 보안 병력이 자르는 소리였다. 건물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이를 확인한 해먼드는 대기 중인 레킹볼에 탑승했다. 차오 박사의 시간 끌기에 바보처럼 당하다니.

함께 모니터를 보고 있던 과학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간 얘기를 듣게 되어 즐거웠단다, 8번 실험체.” 차오 박사는 숨을 씨근덕대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포위되었어. 위층, 아래층, 주위에 모두 경비들이란다. 윈스턴은 이제 루청 소유가 아니라 치더라도... 너는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 이젠 영원히 없을 거란다.”

격노한 해먼드는 전진하면서 멀티툴을 꺼내 차오 박사가 앉아 있던 의자의 오른쪽 팔걸이에 위치한 제어판을 계속 찢러댔다. 의자가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해먼드는 분노로 씩씩대면서 과학자를 내려다봤다.

메카가 통역했다. “햄스터는 소유물이 아니다.”

“원한다면 나를 죽여. 그래도 변하는 건 없단다.” 차오 박사는 움찔하며 말했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살만큼 살았어. 내가 설립한 루청은 영원할 테니,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단다.”

해먼드가 으르렁댔다. “떠보는 말이다.” 4연장 기관총을 회전시키던 메카가 말했다. 차오 박사는 눈을 깜빡인 채 몸을 웅크리고 마지막을 기다렸지만, 탄환은 발사되지 않았다. 4연장 기관총이 회전을 멈추자 과학자는 혼란스러운 듯 눈을 떴다. 해먼드가 투명스럽게 종얼대자 메카가 말을 전했다. “거짓말쟁이.” 햄스터는 차오 박사가 부품의 위치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분명 함정에 빠트릴 생각이었을 테니까.

해먼드는 무기 체계를 완전히 비활성화했고, 의기양양한 과학자의 면전에 대고 뭐라고 짹짹했다. “햄스터는 너를 죽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네가 건설한 영원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메카가 외쳤다.

제어패드 쪽으로 상체를 굽힌 해먼드는 분노에 차 입력을 쏟아 넣었다. 달 기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너희는 감시당하고 있다.

메카가 차오 박사의 음성을 방송했다. “솔직히 자만심에서였단다. 할 수 있으니까 해본 거지.”

놀란 차오 박사의 눈이 커졌다. 이내 감정을 추스른 과학자는 무거운 표정이었다. “머리는 잘 썼는데, 너무 늦었어.”

보안 인원이 방으로 뛰어들자 차오 박사는 외쳤다. “도망치도록 놔두지 마!”

햄스터는 으르렁대면서 짹짹 소리를 냈다. “도망칠 생각도 없다.” 메카가 말을 옮겼다. “햄스터는 여기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해먼드는 몸을 숙이며 레킹볼에 탑승하여 뚜껑을 닫고 4연장 기관총을 회전시켰다. “햄스터를 한번 막아

# 제어 패드 쪽으로 상체를 굽힌 해먼드는 분노에 차 입력을 쏟아 넣었다. 달 기지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너희는 감시당하고 있다.

봐라.” 메카가 외쳤다. “햄스터는 기꺼이 즐길 것이다.” 방탄 장갑을 착용한 인간들은 대답 대신 해먼드가 처음 보는 소총으로 사격을 시작했다.

“항복해라!” 보안 관리자가 명령했다. “너는 수적으로 열세에다 포위된 상태다.”

해먼드는 반항적인 웃음을 내뿜었다.

“재미있군!” 메카가 말했다. “딱 좋다!”

해먼드는 그저 경비들을 움찔하게 만들려고 총을 발사했다. 레킹볼에 총알이 쏟아졌고, 메카는 경보 메시지를 재생했다. “공격받는 중. 적응형 보호막 활성화 완료.” 해먼드는 메카의 팔다리를 접은 후 구르기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비병 무리를 손쉽게 쓰러트리며 지나갔다. 반응이 너무 느려 미처 피하지 못한 인간들이 공중으로 날아가자 햄스터는 킬킬 웃었다.

“지원이 필요하다!” 관리자가 통신 장비에 소리쳤다.

“지금 도착합니다!” 대답이 들려왔다.

복도에서 10명 이상의 경비가 더 뛰어나오자 관리자가 미소 지었다. “해치우자!”

해먼드, 아니 레킹볼의 구슬 같은 눈이 경멸로 빛났다. 차오 박사는 기운 없이 늘어진 늙은이였을 뿐이었다. “루청은 해먼드를 막을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햄스터는 신나서 중얼댄 후, 대인 지뢰 뭉텅이를 경비 무리에 던졌다. 지뢰는 착지한 뒤 불길하게 깜빡였고, 찰나의 대응 시간이 주어진 인간들은 각양각색의 창의적인 육지거리를 내뿜으며 혼비백산 도망쳤다.

해먼드는 그러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뢰를 발동시켰다.

유리 타워에서 루청 인터스텔라가 위치한 63층이 거리 쪽으로 폭발했다. 격발하는 지뢰 불빛이 유리 파편에 반사되어, 아래로 죽음의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다. 해먼드는 보안 인원이 놀라 자빠진 틈을 타 메카를 창밖으로 이동시켰다. 낙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갈고리가 뺏어 나와 건물 외부에 노출된 철근에 걸렸다. 레킹볼은 폭발을 피한 경비들의 사격을 측면 진자 운동으로 타이밍 좋게 회피했다. 3층 아래에서 건물 속으로 다시 들어온 메카는 이미 봐둔 제조 연구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퀴이 찾고 있었던 반중력 추진기의 중요 부품이 있었다. 그것도 차세대 제품으로. 인간들은 전열을 가다듬고는 다시 추적을 시작했다.

경비들은 너무 느렸고, 레킹볼은 이내 지상층까지 내려왔다.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해먼드는 싸움을 즐기는 편이었지만, 이제는 후퇴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레킹볼의 방향을 바꾼 후 밤 속으로 굴러 사라졌다.

햄스터는 리장의 버려진 거리를 지나면서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짚어봤다. 비교적 단순한 확보 임무로 시작했지만... 어쩌다 보니 과거를 바로잡게 되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에 대한 질문도 많이 생겼다. 차오 박사에게서 충분한 답을 얻고, 박사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웃음이 절로 지어졌다) 복수하는 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루칭의 모든 직원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 유인원들은 아직 달에 표류한 신세였지만, 해먼드는 달랐다. 반짝이는 새 장난감도 마련했고, 재미만 있다면 자신을 도울 강력하면서도 광기 넘치는 친구도 있었다. 이번에는 차오 박사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것을 넘어, 유인원들이 부수지 못한 나머지를 모조리 파괴할 계획이었다. 원숭이들의 도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으로.

---

아침 해가 오지를 물들일 무렵, 정커퀸은 낮은 물결 모양의 주석 지붕 위에 올라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인 퀸은 방치된 마을에서 노략해온 낱아 빠진 접이식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일출보다 반짝이는 금속은 없지.” 감상평도 날렸다.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예고편을 때리는 것 같잖아?” 정커퀸은 옆에 있던 메리와 가이거에게 고개를 돌렸다. “프로젝트는 잘 되어 가고 있나?”

“걱정 마.” 메리가 답했다. “곧 준비될 테니.” 메리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이었다. “반중력 추진기도 곧 가동 준비할 참이야.”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었다. 퀸은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다. 쓰레기촌에 위협이 된다면 용납할 수 없다. “가이거?”

반은 인간, 반은 기계였던 고철 수집가는 몸체에서 망원경을 꺼내 온전한 눈에 갖다 댔다. 가이거의 외눈이 커졌다. 퀸은 가이거가 던진 망원경을 낚아채 접근하는 존재를 바라봤다. 레킹볼이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는 게 보였고, 정커퀸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다.

메카가 쓰레기촌의 장벽에 도착하자 해치가 열리고, 해먼드가 박력 있게 기지개를 켜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이 살짝 덜렁거렸지만 햄스터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해먼드는 주위를 둘러보다 탁 트인 아침 하늘 저 멀리 창백하게 지는 달을 주시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런, 이런, 이런.” 정커퀸이 장벽 위에서 히죽거렸다. “집 나간 생쥐가 돌아오셨군. 피곤해 보이는데? 사냥감 좀 잡고 오셨나?”

해먼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햄스터는 과묵한 편이다.” 메카가 말을 전했다.

퀸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도 목적은 달성한 거지? 곧 시작할 수 있어?”

햄스터는 나른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임무 성공.” 메카가 통역해주었다.

정커퀸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턱으로 거주지 입구를 가리켰다. 잘 돌아왔다는 나름의 환영 인사였다.

메리가 통신 장비를 꺼낸 후 마이크에 말했다. “문 열어. 챔피언이 돌아왔다.”